

『漢韓大辭典』에 보이는 『金瓶梅詞話』 관련 어휘 誤謬研究*

최 태 훈
(한양대학교)

1. 序言

1) 研究目的

몇 해 전 檀國大學 동양학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完刊한 『漢韓大辭典』(전체 16권)은 많은 연구자의 32년에 걸친 열정과 노력의 산물이다. 『漢韓大辭典』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본 사전은 한자와 한문어휘를 집대성하였고 그 분량과 내용의 충실함은 다른 사전을 압도함에 틀림이 없다. 5만 5천여 자, 45만여 어휘는 단연 東洋 最大の 사전임을 자부할 만하며, 이름만으로도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¹⁾

그러나 대부분의 사전이 그러하듯 『漢韓大辭典』 역시 곳곳에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권위와 지위를 인정하는 일반인들은 『漢韓大辭典』을 별다른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사전

* 이 논문은 2012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HY-2012-G)
1) 『『漢韓大辭典』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 (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12쪽.

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의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출판물이다. 실제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傳達하거나 학술적 根據로 삼는 것은 큰 착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사전은 일반적으로 意味項目, 意味解釋, 出典例文등 3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漢韓大辭典』은 각각의 영역에서 불합리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漢韓大辭典』 상의 문제점을 수정해 보려고 한다. 다만 이 한편의 소논문에서 모든 문제를 낱낱이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定石대로 한다면 사전의 1권 1페이지부터 차례로 모든 허점을 수정해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이것은 당초 一個人이 해결할 분량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좁혀 『金瓶梅詞話』 안에 보이는 어휘를 선택하여 『漢韓大辭典』이 해당 글자의 意味項目, 意味解釋, 出典例文에서 보이는 문제를 나름의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려 한다.

종합하면 『金瓶梅詞話』와 관련된 사전의 항목에 있어서 기본적인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 이는 앞날의 『漢韓大辭典』의 수정작업에 微力하나마 一助가 되었으면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며, 그 오류의 전달이 여러 학문 분야와 다음 세대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논문의 취지인 것이다.

2) 研究方法

필자는 『漢韓大辭典』의 『金瓶梅詞話』와 관련된 어휘 항목의 오류를 밝히기 위해 몇 가지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의 방법과 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漢韓大辭典』 가운데 『金瓶梅詞話』와 관련된 항목의 오류를 크게 意味解釋 誤謬修正, 意味解釋 補充修正, 其他問題 誤謬修正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논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각각의 내용은 다시 4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분석 처리할 것이다. 오류대상의 어휘들은 많으나 그것을 모두 지면에 담을 수는 없는 관계로, 그 가치에 따라 필자가 임의로 선별할 것이다.

둘째, 위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漢韓大辭典』의 편찬 기준에 합당한 논증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漢韓大辭典』은 後代에 出刊된 文獻을 가장 이른 出典例文으로 착각하여 第一 예증으로 삼는 誤謬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사전의 편찬 원칙을 신중히 고려하여 분석해 나갈 것이다. 셋째, 설정한 기준에 한정해서 문제를 분석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항목에 관련된 기타 오류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문 첫 번째 “意味解釋 誤謬修正”을 언급할 때는 사전의 항목 내에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들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설정한 형식에 역매이지 않고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각도로 오류에 접근할 것이다.

넷째, 日本의 『大漢和辭典』, 臺灣의 『中文大辭典』, 中國의 『漢語大詞典』을 『漢韓大辭典』과 비교 분석 하도록 하겠다. 시기적으로 앞서 나온 이러한 사전이 동일 의미항목에 대하여 의미해석과 출전예증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본다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漢韓大辭典』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오류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漢韓大辭典』은 前代의 사전을 상당 부분 참고한 관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白維國編 北京 中華書局的 『金瓶梅詞典』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다.²⁾

다섯째, 국내에서 ‘제작된’ 『漢語大詞典』 컴퓨터판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에서 타자를 쳐서 만든 것으로 인물이나 어휘 검색에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얻기 어렵겠지만 『漢韓大辭典』이 『漢語大詞典』의 내용을 借用한 부분이 많은 관계로 『漢語大詞典』 한글판은 필자의 연구 영역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人民文學出版社의 1991년 本 『金瓶梅詞話』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明代 萬曆 丁巳年(1617년)의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다양한 『金瓶梅詞話』 판본과 사전을 참고하였다. 따라서 나름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³⁾ 이를 통하여 기타의 풍부한 자료가 보강 된다면,

2) 『金瓶梅詞話』 관련 사전은 위의 사전을 제외하고 대표적인 것이 두 종류가 더 있다. 王利器 主編의 『金瓶梅詞典』과 黃霖 主編의 『金瓶梅大詞典』이 그것이다.

3) 寧宗一 《金瓶梅詞話, 前言》(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年), 8쪽: 多年來

본 논문을 통해 언급할 『金瓶梅詞話』와 관련된 『漢韓大辭典』의 오류 분석은 좀 더 구체적인 신뢰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金瓶梅詞話』 관련 語彙 誤謬類型 分析 및 修正

1) 意味解釋 誤謬修正

① 『漢韓大辭典』2권 451페이지의 “列子”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列子 열자】1. 列御寇의 존칭 2. 못 선비를 이르는 말. 『金瓶梅詞話, 97回』 風吹列子歸何處, 夜夜嬋娟在柳梢. 3. 책이름. 8권. 전국시대 鄭나라 列御寇지음.……

위의 1, 3번을 보면 “列子”는 전국시대 鄭나라 사람으로 “列御寇의 존칭” 혹은 책이름이 라 적혀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번의 의미이다. 도대체 “못 선비”란 무슨 의미인가? 『莊子, 逍遙遊』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夫列子御風而行, 泠然善也.” 이것은 말 그대로 “열자가 바람을 타고 다니니, 날렵함이 훌륭하구나”⁴⁾로 해석이 된다. 후대 사람들은 이러한 典故를 많이 응용하여 사용하였다.⁵⁾ 비슷한 경우는 다른 문헌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한글로 만든 『漢語大詞典』에서 ‘찾기’ 기능을 써서 “列子”

《金瓶梅》點校及語辭研究成果斐然, 本書亦有所汲取, 不敢掠美, 僅將主要參考書布列於下, 注文中不再一一標示: 1. 姚靈犀《瓶外卮言》2. 魏子云《金瓶梅詞話註釋》3. 王利器 主編《金瓶梅詞話》4. 黃霖 主編《金瓶梅大詞典》5. 白維國《金瓶梅詞話》6. 傅憎享《金瓶梅隱語揭秘》7. 人民文學出版社 1985年版 戴鴻森 校點《金瓶梅詞話》8. 浙江古籍出版社 1991年版《李漁全集, 新刻綉像批評金瓶梅》9. 岳麓書社 1995年版 白維國 卜鍵 校注《金瓶梅詞話校註》.

4) 王雲伍 主編《莊子今註今譯》(臺北: 臺灣常務印書館, 1998年) 19쪽

5) 白維國 編《金瓶梅詞話》(北京: 中華書局 1994年) 325쪽: “戰國時的思想家. 傳說他能御風而行, 故後來說到風時常以列子作典.”

가 쓰인 대표적 예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老殘遊記』第三回：“只畫了一箇人，仿佛列子御風的形狀，衣服冠帶均被風吹起。”

宋蘇轍『御風辭』：“子列子行御風，風起蓬蓬……衝擊隙穴，震蕩宇宙，披拂草木，奮厲江海，强者必折，弱者必從。”

南朝梁劉孝標『與學法師書』：“旦候歸鴈晨覺，暮聽羈雌獨鶴，神影影爾，蓋象蕭史之騎鳴鳳，列子之御長風。”

明李東陽『弘治己酉十月恭陪茂陵禪祭途次次韻答謝方石贈別』：“鄭公聽履星俱下，列子乘風氣可騎。”

【離合風】傳說中列子所御的風。『說郛』卷伍九引『陸機要覽』：“列子御風，常以立春歸乎八荒，立秋遊乎風穴。是風至則草木發生，去則搖落，謂之離合風。”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지막 “離合風” 항목이다. 사전은 “전설 중에 열자가 다스린 바람”이라고 적고 있다. 또한 위 예문의 대부분은 “御風”, “乘風”을 언급하였다. 어찌되었든 列子は 바람을 다스리거나, 바람을 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바람이 못 선비에게 부니.....”라고 해석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에서 출판된 『金瓶梅』 완역본을 살펴보아도 위의 출전예증 부분에 대해서 “바람이 부니 열자는 어디로 가나”⁶⁾라고 풀어 놓았다. 즉 “列子”를 절대로 “못 선비”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金瓶梅詞話』 97回의 앞뒤 줄거리를 살펴보아도 “列子”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위의 예문은 陳經濟가 葛翠屏과 결혼하여 신방에서의 雲雨之情을 나누는 상황을 詩로 표현한 것이다. 그 즐거움을 도가적 환상에 빚대어 바람 불어 날아가는 “列子”에 비유하여 언급한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에 심취하여 그 기쁨이 바람 불어 날아갈듯 할 때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다른 곳에서도 보인다. 도가의 대표적인 아이콘 “列子”, “莊周”를 사용하여 사람이 술에 취한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 할 수 있는 것이다.

6) 笑笑生, 강태권 번역, 『金瓶梅』, 서울: 서울출판사, 2002年, 215쪽.

다음을 살펴보겠다.

酒杯濃，一葫芦春色醉山翁，一葫芦酒壓花梢。隨我奚童，葫芦乾興不窮。誰與共，一帶青山送。乘風列子，列子乘風。
酒新筍，一葫芦春醉海棠洲，一葫芦未飲香先透。俯仰糟丘，午人間萬戶侯。重酣後，夢景皆虛謬。莊周化蝶，蝶化莊周。

이것은 元曲으로 盧摯의 『雙調, 殿前歡』이다.⁷⁾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 두 구절의 끝부분을 보면 “乘風列子, 列子乘風”, “莊周化蝶, 蝶化莊周”라고 적고 있다. 술에 취해 날아갈듯 한 모양과 그 허무함을 도가의 아이콘 “列子”, “莊周”에 의탁한 표현인 것이다.

『大漢和辭典』(2권 223페이지), 『中文大辭典』(1권 1649페이지)을 살펴보아도 “못 선비”란 표현은 없다. 백번 양보하여 “신선” 정도의 파생된 의미를 적었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못 선비”는 문제가 있는 해석인 것이다. 따라서 『漢韓大辭典』“列子”의 두 번째 의미항목은 마땅히 삭제해 볼 것으로 생각된다.

② 『漢韓大辭典』5권 976페이지의 “打旋磨”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打旋磨 타선마】(白) 어떤 물건을 둘러쌌. 주위에서 정성스럽게 바침. 귀찮게 굶. 『金瓶梅詞話, 60回』那玉簫跟到房中打旋磨兒跪在地下, 央及伍娘千萬休對爹說. 『紅樓夢, 9回』你那姑媽只會打旋磨兒, 給我們璉二奶奶跪著借當頭.

우선 기본적인 문제점부터 바로 잡고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위의 출전예문의 출처가 잘못되었음을 밝혀두겠다. 60회가 아니라 64회에 본 예문이 있다.⁸⁾ 또한 “打旋磨”의 의미항목에 대한 오류를 언급해 보겠다. 이것을 사용한 예문은 『金瓶梅詞話』의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7) http://www.gushiwen.org/GuShiWen_5f12e59f57.aspx
8) 笑笑生, 《金瓶梅詞話》(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年) 下卷, 814쪽



25回: “落後媳婦子走到屋里, 打旋磨跪着我, 教我休對他娘說。”

26回: “雪娥恐怕西門慶來家, 拔樹尋根, 歸罪於己, 在上房打旋磨兒跪着月娘。”

51回: “就是來宅裏與俺姑娘做生日的這一日, 你上轎來了就是了, 見祝麻子打旋磨兒跟着, 從新又回去,……”

『漢韓大辭典』에서 사용된 2개의 예문과 위의 3가지 예문을 살펴보면 25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打旋磨兒”로 “兒”을 쓰고 있다. 인터넷 성어사전을 찾아보니 “打旋磨兒”(古代成語) 혹은 “打旋磨子”(近代成語)는 찾을 수 있었으나 “打旋磨”로는 검색이 되지 않았다.⁹⁾ 뿐만 아니라 高麗大『中韓辭典』에서도 “打旋磨兒”로 기재되어 있었다.(1994년 449쪽) 여기서의 문제는 『漢韓大辭典』과 『金瓶梅詞典』은 “打旋磨”로 의미항목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본 상황은 兒化로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兔子가 兔兒로, 帽子가 帽兒로 바뀌듯이 磨子(맷돌)가 磨兒로 兒화된 것이다. 즉 앞의 명사 성분이 단독으로 쓰이지 않을 때 “兒”를 붙여 처리하는 방식인 것이다. (“磨”는 단독 글자만으로 맷돌의 의미가 있으나 상용되지 않고 있다.) 위의 5개 예문 가운데 4개가 “打旋磨兒”로 쓰였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打旋磨” 보다는 “打旋磨(兒)”로 수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

둘째, 앞서 검색한 인터넷 성어사전을 통해 “打旋磨兒”의 의미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旋: 轉動. 轉動磨子, 反復不停. 比喻向人有所要求, 一再糾纏” 이를 해석해보면 “맷돌을 돌려 반복적으로 멈추지 않다. 사람에게 요구하는바가 있어, 거듭 매달림을 비유 한다”이다. 즉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매달리듯 부탁하고 사정할 때 사용하는 성어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물건을 둘러쌌. 주위에서 정성스럽게 바침. 귀찮게 굶.”이란 해석을 사용하면 사전의 예문을 매끄럽게 번역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인식해야 할부분이 있다. 왜 맷돌을 써서 이런 표

9) <http://chengyu.aies.cn/> 成語大全

현을 했냐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사정을 받는 이가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그쪽으로 꿇고 기어가서 간청하고, 또 다른 쪽으로 몸을 돌리면 따라가 매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들고 멈추지 않고 부탁하는 모양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

나아가 인터넷 성어사전을 통해 “打旋磨子”도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았다: “轉動磨子, 反復不停. 比喻向人有所要求獻殷勤.” 『漢韓大辭典』의 “(주위에서) 정성스럽게 바침”이란 표현은 아마도 “獻殷勤”을 옮겨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위의 牽強附會에 버금가는 의미해석은 “맷돌이 돌듯 원을 그리며 쫓아 돌아가며 정성스럽게 매달리며 간청하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漢韓大辭典』10권 589페이지의 “科兌”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科兌】저당 잡히거나 돈을 빌릴 때, 저당 물품을 돈으로 환산함. 『金瓶梅詞話, 16回』 家裏有三箇川廣客人, 在家中坐著, 有許多細貨要科兌與傅二叔, 只要一百兩銀子押合同, 約八月中旬找完銀子.

필자가 생각하기에 위 “科兌” 항목의 의미해석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당”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저당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맡긴 물건 따위를 마음대로 처분하여도 좋다는 조건하에 돈을 빌리는 일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金瓶梅詞話』 해당 원문의 주석을 살펴보면 “科兌”에 대하여 “按價將貨物折合與人”이란 풀이가 기재되어 있었다.¹⁰⁾ 말 그대로 풀이하면 “물건을 가격에 맞춰 사람에게 환산해준다”라는 의미이다. 『金瓶梅詞典』을 찾아보아도 이와 비슷한 해석이 나와 있다: “把貨物一總按價折合給人. 科, 種類.”¹¹⁾ 두 출판물 사이의 차이는 물건 “일체, 전부(一總)”라는 말의 유무일 뿐 그 뜻은 대동소이했다. 즉 앞의 의미해석에 보이는 “저당”과 관련된 구체적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다.

10) 笑笑生, 《金瓶梅詞話》上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 174쪽.

11) 白維國 編, 『金瓶梅詞典』, 北京: 中華書局. 1994, 293쪽.

“科兌”가 “저당”과 관계없다는 결정적인 단서는 위 예문에 뒤이은 소설의 내용에 보인다: “你不知賊蚤奴才行市, 連貨物沒處發脫, 才來上門脫與人, 遲半年三月找銀子; 若快時, 他就張致了.”(당신은 남쪽 장사꾼들의 장사 스타일을 모른다. 물건을 다 팔 곳조차 없어서야, 비로소 찾아와 우리에게 손털려한다. 반년 남아 늦게 돈을 쥐야한다. 만약 시간을 서두르면 그들은 허장성세를 부린다.) 주지하다시피 “發脫”이란 표현은 “손을 땀, 팔아치우다”란 의미이다. 실제로 『漢韓大辭典』 9권 1094페이지 “發脫” 항목을 찾아보면 『金瓶梅詞話, 16回』의 “連貨物沒處發脫”을 출전예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川廣客人”이 저당을 잡히려 온 것이 아니라 일종의 떨이를 하러 온 형국인 것이다. 따라서 『漢韓大辭典』 “科兌”의 미항목은 “물건 전부를 가격에 맞게 사람에게 환산해준다”로 적어 주며 “저당”이란 말은 철저히 삭제해 주어야 타당하다.

④ 『漢韓大辭典』 10권 658페이지의 “稍間”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稍間】(백) 가옥의 가장자리에 있는 공간. 주로 柴草 따위를 쌓아 두는 헛간을 이른다. 『金瓶梅詞話, 15回』 儀門去兩邊廂房三間, 客座一間, 稍間過道穿進去第三層, 三間臥房, 一間廚房, 後邊落地緊靠著喬皇親花園.

한국어에서 “헛간”은 막 쓰는 물건을 쌓아 두는 광. 흔히 문짝이 없이 한 면이 터져 있는 장소를 지칭한다.¹²⁾ 즉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머무는 장소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金瓶梅詞典』 465페이지를 보면 “房兩頭的小間; 側室”이라 적어 놓고 있다.¹³⁾ 이것은 가운데 방이 하나 있고, 이 방을 기점으로 좌우에 있는 작은 방인 것이다. main room 양쪽에 있는 곁방인 것이다. 이것을 위의 의미해석과 같이 “헛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12) <http://krdic.naver.com/search.nhn?kind=all&scBtn=true&query=%ED%97%9B%EA%B0%84> (국어사전)

13) 白維國 編, 『金瓶梅詞典』, 北京: 中華書局, 1994, 465쪽.

이것에 대해 극명하게 설명해주는 예문이 『金瓶梅詞話, 82回』에 보이고 있다: “原來潘金蓮那邊三間樓上, 中間供養佛像, 兩邊稍間堆放生藥香料.”(원래 반금련이 있던 3칸 방은 위층에 있는 것으로, 중간 방은 불상을 공양하고, 양쪽 측면의 방은 생약과 향료를 쌓아두었다.) 이 문장을 보면 『金瓶梅詞話』의 풀이와 완전히 일치하는 방의 구조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부연하자면 『漢語大詞典』은 “稍間”과 “梢間”을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漢韓大辭典』 7권 320페이지를 살펴보면 “稍間” 항목에 대한 의미해석이 나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柴草를 쌓아 두는 헛간”이라 기재하여 “헛간”이란 어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梢間” 항목에서 사용한 출전예문 『金鳳釵, 3折』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少了我房錢, 不要你頭房裏住, 你梢間裏住去.” 이 문장을 살펴보면 “房錢”(방값), “頭房”(객잔의 上等 방)을 언급하고 있다. 즉 돈이 좀 부족하니 고급 방에서 잘 수는 없고, 약간 싼 곳에서 잔다는 이야기 이다. 절대로 헛간에서 잔다는 뜻이 아닌 것이다.

『金瓶梅詞話, 30回』에도 “梢間”을 사용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在房裏看了一回, 把孟玉樓拉出來, 兩個站在西梢間檐柱兒底下那里歇涼, 一處說話.”(방안을 휘 둘러보고, 맹옥루를 데리고 나와, 둘은 서쪽 작은 방 처마 기둥 밑에 서서 더위를 식히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것을 보면 명백히 “西梢間”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가운데 방을 기준으로 서쪽에 가까운 방인 것이다. 따라서 “稍間”과 “梢間”은 적어도 “헛간”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공간이다. 이것의 의미해석은 “가운데 방 양옆의 좌, 우 곁방”으로 풀이해주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한다.

2) 意味解釋 補充修正

① 『漢韓大辭典』 1권 66페이지의 “一日”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一日】1. 하루. 2. 하루의 낮. 3. 어느 날. 4. 어제. 5. 다른 날. 6. 온 중일.
7. 어느 날 갑자기. 8. 조만간. 언젠가 9. 한 때의 짧은 동안. 10. 초하루

(전 의미항목 출전예문 생략)

『金瓶梅詞話, 80回』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韓大孀來與爹上紙, 在前邊站了一日了.” 여기서 사용된 “一日”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80回的 문장에서 사용된 “一日”에는 『漢韓大辭典』의 풀이와 다른 의미가 있다. 우선 소설의 줄거리를 통해 제시된 예문이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날 한도국의 처 왕육아가 제사를 준비하고 소복차림으로 가마를 타고 와서 (죽은) 서문경에게 紙錢을 태웠다. 영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회고하며 서있었다. 서있기를 한참을 이었으나 아무도 나와서 (그녀를) 대접하지 않았다.....”(不想那日韓道國妻王六兒, 亦備了張祭桌, 喬素打扮, 坐轎子來與西門慶燒紙. 在靈前擺下祭祀, 只顧站着. 站了半日, 白沒個人兒出來陪待.)

위의 내용은 서문경이 죽고 나서 왕육아가 조문을 온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뒤이어 하인은 현 상황을 鳴月娘(서문경의 첫째 부인)에게 간단히 보고한다. 그 보고의 내용이 바로 “韓大孀來與爹上紙, 在前邊站了一日了.”란 문장이다. 즉 韓道國의 妻 王六兒은 “韓大孀”이고, 西門慶은 “爹”로 쓴 것이다. “燒紙”는 “上紙”와 같은 의미로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站了半日”이 “站了一日了”에 해당되는 표현인 것이다. 다시 말해 “半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선행된다면 “一日”의 의미도 분명해 지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大漢和辭典』(2권 543페이지), 『中文大辭典』(2권 210페이지), 『漢語大詞典』(1권 708페이지), 『漢韓大辭典』(2권 878페이지)의 “半日” 항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사전의 두 번째 의미항목에서 “오랫동안”이란 풀이를 찾을 수 있었다. 『金瓶梅詞典』에서도 “一日” 항목을 찾아보면 “表示時間長”으로 풀이를 하고 있다.¹⁴⁾

이와 같은 현상은 『金瓶梅詞話, 20回』에서도 확인 되고 있다: “我打發

14) 白維國 編, 『金瓶梅詞典』, 北京: 中華書局, 1994, 627쪽.

娘睡下這一日了. 我來前邊瞧瞧.” 해석하면 “나는 마님께서 오랫동안 주무시도록 돌봐드리고, 이쪽으로 나와 봤다”로 풀이하면 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혹은 “긴 시간”으로 『漢韓大辭典』 “一日”의 11번째 의미해석을 추가 보충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② 『漢韓大辭典』 6권 217페이지의 “攪撒”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攪撒】(백) 유산(流產)함. 『金瓶梅詞話, 30回』 月娘道, 李大姐忽然害肚裏疼, 屋裏躺著哩. 我剛纔使小丫頭請他去了. 因向玉樓道, 李大姐七八臨月, 只怕攪撒了.

먼저 위의 의미해석을 기반으로 출전예문을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월랑(서문경의 첫째 부인)이 말하길, 이병아(서문경의 여섯째 부인)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방에 누워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녀를 시켜 모셔오라 했어요. 그러면서 옥루(서문경의 셋째 부인)에게 말하길 이병아가 7-8개월 되었는데 “유산”될까 걱정됩니다.” 이 해석은 내용의 흐름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流産”이라 함은 임신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妊産婦가 임신한지 7-8개월(七八臨月)이 되었는데 유산이 가능한 것인가?

사전의 어휘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어색한 이야기 일 수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의학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다. 필자는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流産”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자연유산이란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의 생존 가능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될 때를 말한다.”¹⁵⁾ 혹은 “임신 7개월 이전에 태아가 죽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고 있다.¹⁶⁾

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162&mobile&categoryId=1736>
1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472&mobile&categoryId=20000704>

주지하다시피 임신기간은 40주이다. 위의 설명대로라면 20주까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유산이라 말하는 것이다. 20주면 140일로 계산이 되고, 단순히 한 달을 30일로 보면 6개월(180일)이 안 되는 시기인 것이다. 대략 만 6개월 전에 임신부에게 말썽이 생기면 그것을 유산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예문은 이병아가 이미 임신한지 7-8개월(七八臨月)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때는 “流産”이라 표현 할 수 없는 시기인 것이다. 早産이나 死産은 가능한 시기이나 유산될 시기는 아닌 것이다.¹⁷⁾

이러한 현대적 의학 상식을 참고하며, 필자는 『金瓶梅詞話』 출판본을 살펴 보았다. 본 내용 아래 주석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다: “攪撒-弄壞.”¹⁸⁾ 이것의 의미는 “망치다, 실패하다, 못쓰게 되다”이다. 이것은 결코 “流産”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또한 『金瓶梅詞典』을 다 각도로 검색한 결과 한 가지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決撒” 항목을 찾아보면 “攪撒”과 같다고 적어 놓고 있었으며, 그 두 번째 의미항목은 “胎氣動”이라 적어 놓고 있었다.¹⁹⁾

한국어에서의 “胎氣”는 “아이를 밴 기미”로 단순히 임신 초기에 임신부에게 보이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百度에서 “胎氣”를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입덧이나 다리의 부종 등을 일컬으며 임신시의 복통을 “胎氣”로도 말한다고 적고 있다.(④『邯鄲遺稿』: “妊娠腹痛者, 名痛胎, 俗名胎氣.”)²⁰⁾ 이것은 “이병아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방에 누워있답니다”라는 『漢

17) 위 예문의 바로 뒷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潘金蓮道: ‘大姐姐, 他那里是這個月, 約他是八月裏孩子, 還早哩.’”(만금련이 말하길: 큰형님, 병아의 산달이 이번 달인가요? 대략 병아는 8월쯤 되어야 아이를 낳을 거예요, 아직은 일러요) 이것은 이병아의 산달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임을 짐작하게 한다. 조선시대 한명회가 칠삭둥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7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는 그 모습이 인간의 형상을 확연히 갖추고 있다. 만약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죽으면 早産 혹은 死産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말 그대로 흐를유(流)자를 써서 流産이라 하기에는 아이의 몸이 이미 크게 만들어져 있어 적당한 표현이 아닌 것이다.

18) 笑笑生, 《金瓶梅詞話》上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년, 346쪽.

19) 白維國 編, 『金瓶梅詞典』, 北京: 中華書局, 1994, 286쪽.

20) <http://baike.baidu.com/view/338478.htm>

韓大辭典』 출전예문의 정황과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 보면 『漢韓大辭典』 “攪撒” 항목의 “流産”이란 의미해석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弄壞”의 개념을 추가하여 꼭 유산만이 아닌 포괄적으로 아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의미의 “잘못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임신시기의 복통”도 추가해서 기재해 주어야 한다.

③ 『漢韓大辭典』 7권 817페이지의 “步戲”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步戲 보희】 연극. 극. 『金瓶梅詞話, 19回』 叫了四個唱的, 一起樂工 · 雜耍 · 步戲. 『醒世姻緣傳, 38回』 我聽說家裡叫下的步戲, 城裡叫了三四個姐兒等待這二日了.

위에서 “연극. 극.”이라 언급한 의미해석은 부족한 감이 있다. 『金瓶梅詞典』을 찾아보아도 “百戲”로만 적어놓고 있다.²¹⁾ “百戲”는 “고대 樂舞와 雜技의 總稱이다.” 이것 또한 “步戲”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아닌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전통 극은 그 종류와 특징이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몽뚱그려 “연극. 극.”이라 말하면 『漢韓大辭典』의 전문성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전의 다른 예를 들어 비교를 해보겠다.

【倒喇 다라】 金, 元 때 잡극의 하나,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악기를 다루고 연기와 노래까지 도맡아 진행하는 극의 한 종류 (『漢韓大辭典』 1권 1162. 사전의 원문에는 “다랄”이라 誤記되어 있다)

【扮會 분회】명절 때 공연하는 연극이나 잡기 (『漢韓大辭典』 5권 1012)

【爵馬】참새와 말의 가면을 쓰고 힘을 겨루던 놀이 이름. 흔히 玩賞하는 사물을 두루 이른다. (『漢韓大辭典』 9권 21)

【社影】굿을 하며 벌이는 각종 잡희 (『漢韓大辭典』 10권 407)

【落子 낙자】 북방의 曲藝인 蓮花落의 속칭 (『漢韓大辭典』 11권 988)

21) 白維國 編, 《金瓶梅詞典》, 北京: 中華書局, 1994, 47쪽.

위의 어휘 항목은 모두 중국의 독특한 “극”, “잡기(희)”, “놀이”, “곡예” 등에 관한 것들이다. 『漢韓大辭典』은 이들에 대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적어도 위의 예처럼 “연극. 극.” 정도의 단순한 풀이를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步戲”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步戲”는 중국 지방의 민간에서 행해지던 戲의 일종이다. 무대를 세우지 않고 평지에서 연출을 한다. 관객은 긴 의자로 공연장소의 4면에 둘러 앉아 관람한다. 연극자가 고정된 연출 장소가 없이 거닐며 노래를 불러서 “步戲”라는 명칭을 얻은 것이다. 隋文昭는 『釋“步戲”』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明代中葉，那些公侯、縉紳以及富豪之家，其府第之中都無舞臺，所以樂人、戲班的演出或其他藝術活動，大都是在廳堂的紅氍毹上進行……它是一種樂人自彈自唱，邊走邊唱的演唱形式。”²²⁾

이상과 같은 근거를 토대로 본다면 “步戲”에 대한 의미해석은 적어도 “중국 지방 민간에서 무대 없이 행해지던 공연 예술의 일종” 정도로 적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 “步戲” 항목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첫째, 사전에서 언급한 『金瓶梅詞話, 19回』의 예문을 해석해 보면 “步戲”의 의미항목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네 명의 노래 부르는 사람과 한 무리의 樂工(악기를 다루는 사람), 雜耍, 步戲를 불렀다”는 것이다. 즉 내용상 “雜耍”, “步戲” 모두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雜耍”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大漢和辭典』, 『中文大辭典』, 『漢語大詞典』, 『漢韓大辭典』 등의 대형사전을 검색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大漢和辭典』: 各種の寤樂物. 寄席の演藝.

『中文大辭典』: 謂各種遊藝之集合也.

22) 隋文昭 <釋“步戲”> 『中國語文』 1987년 2기 총 197기

『漢語大詞典』: 1. 雜技. 有時亦兼指曲藝. 2. 指演雜技的人.

『漢韓大辭典』: 없음

다른 사전에서는 언급함이 없었지만, 유독 『漢語大詞典』에서만 “指演雜技的人”이란 표현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해석하면 “雜技를 공연하는 사람”이 된다. 『金瓶梅』 한국어 완역본을 참고해보면 “노래하는 사람 네 명과 악사 한 무리, 잡기를 부리는 광대들을 불렀다”라고 적고 있다.²³⁾ 모두 사람인 것이다. 그렇다면 『漢韓大辭典』 “步戲” 에서도 『漢語大詞典』 “雜耍”의 의미를 참고하여 “중국 지방 민간에서 무대 없이 행해지던 공연 예술을 하던 사람”이란 두 번째 의미항목을 추가해 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叫了四個唱的, 一起樂工·雜耍·步戲.” 『漢韓大辭典』은 이 예문 가운데 문장부호를 “,”과 “·”를 사용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여겨진다. 일단 “네 명의 노래 부르는 사람, 한 무리의 악공, 잡기하는 사람, 극하는 사람”으로 전부 같은 품사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술목구조의 목적어 병렬인 것이다. 따라서 “,”과 “·”을 혼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金瓶梅詞話』의 원문을 확인해보면 그 결과는 더욱 명쾌해진다: “叫了四個唱的, 一起樂工, 雜耍步戲.”²⁴⁾ 책은 “四個唱的”, “一起樂工”, “雜耍步戲” 세 부류로 나누어 놓았다. 바이두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人民文學出版社 본과 같은 문장부호가 쓰이고 있었다. 네 글자씩 묶어서 놓다보니 “雜耍”와 “步戲”가 붙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金瓶梅詞話』의 원문에 입각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步戲”의 문제점에 한정하지 않고, “雜耍”에 대해서도 말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漢韓大辭典』은 “雜耍”의 어휘항목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雜耍”란 어휘가 그토록 사용빈도와 중요도에서 언급할 가치가 없는 어휘인가? 필자는 이와 같은 의문에서 『漢韓大辭典』의 출전예증 가운데

23) 笑笑生, 강태권 번역, 《金瓶梅》, 서울: 솔출판사, 2002, 229쪽. 필자가 생각하기에 강태권의 번역은 “步戲”에 대한 구체적 해석이 결여된 것으로 생각된다.

24) 笑笑生, 《金瓶梅詞話》上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 205쪽.

“雜耍”가 사용되어진 용례를 찾아보았다.

【像聲 상성】입내. 성대모사. 『燕京歲時記·封台』 戲劇之外, 又有托偶影戲'八角鼓'什不閑'子弟書'雜耍把式'像聲'大鼓'評書之類……(『漢韓大辭典』1권 1362)

【把戲 과희】마술, 요술 등의 잡기. …… 明 劉若愚『酌中志·內臣職掌紀略』 所扮者備極世間騙局醜態……雜耍把戲等項. (『漢韓大辭典』5권 1063)

【躡高躡 사고교】두 다리를 각각 긴 막대기 위쪽에 묶고 걸어 다니며 공연하는 놀이. …… 清 李斗『揚州畫舫錄, 虹橋錄下』 雜耍之技, 來自四方……置丈許木於足下, 可以超乘, 謂之躡高躡. (『漢韓大辭典』13권 582)

이렇듯 “雜耍”가 여러 예문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漢韓大辭典』이 따로 어휘항목을 설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필자는 『漢語大詞典』에서 “雜耍”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어휘를 검색할 수 있었다.

【散耍】宋代表演技藝之一. 猶雜耍.

【拉洋片】一種民間雜耍. 在裝在凸透鏡的木箱中掛著各種畫片, 藝人一邊拉換畫片, 一邊說唱畫片內容. 觀眾從透鏡里可以看到放大的畫面.

【踩高躡】一種民間雜技. 表演者裝扮戲劇或傳說中的人物, 踩著有踏脚裝置的木棍, 邊走邊表演.

위의 단어는 일종의 “雜耍”類 명칭이다. 유감스럽게도 세 가지 어휘 항목은 『漢韓大辭典』에서 언급하지 않고 누락된 것들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정황을 분석해보면 『漢韓大辭典』은 “雜耍”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지도 않았으며, 그와 관련된 기타 어휘의 언급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5만 5천여 자, 45만 어휘를 자랑하는 사전으로서 앞으로 수정, 보충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④ 『漢韓大辭典』 9권 214페이지의 “狼虎”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狼虎】1. 이리와 호랑이. /漢, 焦贛『易林, 大畜之復』狼虎結謀, 相聚爲
儔, 同嚼牛羊, 道絕不通, 病我商人. 『說嶽全傳, 71回』來至一個村中,
俱是惡狗, 形如狼虎一般. 2. 흉악하고 잔인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唐,
杜牧『上李太尉論江賊書』追逮證驗, 窮根尋葉, 狼虎滿路, 狴牢充塞.
/唐, 溫庭筠『過孔北海墓二十韻詩』鸞皇嬰雪刃, 狼虎犯雲屏.

『金瓶梅詞話, 86回』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王潮道: ‘是猫咬老鼠, 黏在炕洞下嚼的響.’ 婆子側耳, 果然聽見貓在炕洞裏狼虎, 方才不言語了.”(왕초가 말하길 이것은 고양이 귀를 잡아 물고 굴속으로 들어가 씹는 소리에요. 노파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과연 고양이가 구멍속에서 狼虎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문장을 『漢韓大辭典』 1, 2번의 의미항목에 대입해 보면, 어느 쪽도 적당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대해 『金瓶梅詞話』 출판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석이 기재되어 있다: “狼虎-貪婪的咀嚼聲”²⁵⁾ 즉 “탐욕스럽게 씹는 소리”인 것이다. 또한 百度에서 “狼虎”를 검색해 보면 다음 3가지의 의미가 보이고 있다: 1. 急驟 (消耗或磨損得快): 他吃東西可够狼虎的. 2. 量大, 數量多: 把飯騁的狼虎点. 3. 不挑食, 能吃: 這孩子可狼虎了.²⁶⁾ 이 가운데 1번이 위의 주석과 궤를 같이 하는 의미인 것이다.

이처럼 『金瓶梅詞話, 86回』를 토대로 살펴본다면 『漢韓大辭典』의 “狼虎”에는 “음식을 탐욕스럽게 먹는”, “소비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빠른” 등의 의미항목을 추가해 주어야 한다.

3) 其他問題 誤謬修正

① 出典例文의 誤字 사용

25) 笑笑生, 『金瓶梅詞話』(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년) 下卷, 1190쪽

26) <http://baike.soso.com/v8202042.htm>

『漢韓大辭典』 1권 111페이지의 “丁八”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丁八】(白) 다투며 대들. 반항함. 『金瓶梅詞話』 32回 因把猫兒的虎
吶，火燒了兩醮，和他丁八着好一向了，這一日只散走了哩.

우선 눈에 띄이는 문제점부터 언급해보도록 하겠다. 人民文學出版社 『金瓶梅詞話』를 찾아서 위의 예문과 대조해보면 “虎口內”로 적혀 있다. 즉 “丁八” 항목의 “虎吶”은 “虎口內”의 잘못된 기재인 것이다. 『漢韓大辭典』 12권 2페이지를 찾아보면 “虎口”의 의미가 정확히 적혀있다. “엄지와 검지의 연결 부분”, “經穴의 하나. 인체 穴位의 습습을 달리 이르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大漢和辭典』, 『中文大辭典』, 『漢語大詞典』에서도 대동소이한 풀이가 적혀있다. 반면 “虎吶”이란 어휘는 그 어떠한 사전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무심히 보아 넘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오류는 사전의 권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또한 人民文學出版社 本 해당 내용의 주석을 살펴보면 “在虎口內或身體的其他部位燃香燒出疤痕，是舊時情人間表示忠貞的一種自虐行爲(엄지와 검지 사이 혹은 신체의 기타 부위를 태운 흉터로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충정을 표현하는 일종의 자학행위이다)”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소설을 읽어보면 “張小二官”이란 남자가 “(董)猫兒”와 관계가 아주 좋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虎口”에 사랑의 상흔을 남길 정도로 사이가 좋은데 갑자기 “그와 줄곧 다투며 대들었다(和他丁八着好一向了)”로 “丁八”을 풀이 한다면 정황상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위의 문장은 因果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因”으로 시작된 “因把猫兒的虎口內火燒了兩醮”가 원인이라면, 그 뒤의 “和他丁八着好一向了”는 결과인 것이다. 사이가 좋은 이유로 말미암아 그와 다투었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즉 “丁八” 항목의 의미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李申은 <釋“丁八”“東瓜花兒”>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丁八”라는 말은 그 풀이가 완전히 상이함이 보인다. 대략 두 가지로 정리 되는데 첫째, 남녀가 헤어짐을 말한다. 이것은 “丁八”을 “不”의 분해자(拆字)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丁八着好一向了”는 즉 “줄곧 관계가 좋지 않았다”가 되는 것이다; 혹은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서 관계가 깨졌다; 혹은 갈라짐을 은유하는 것이다. 둘째, 양쪽의 관계가 밀접함을 말한다. 이것은 “丁字不圓 八字不正”을 간추려 “丁八”이라 하고, 뜻은 행위가 단정치 않다는 의미가 된다. “丁八着好一向了”는 즉 “남녀가 행실이 단정치 못하게 줄곧 같이 엮여 있다”의 의미이다; 혹은 자형으로서 남녀가 서로 합치됨을 비유한다; 혹은 “丁八”의 ‘八’은 응당 ‘巴’로 되어야 하며 丁巴라 함은 마치 못질하여 서로 붙어있듯이, 결합함이 매우 공고하다는 뜻이다. 이 市井語는 양쪽이 사이가 좋다는 말이다.²⁷⁾

위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면 “丁八”은 “관계가 나쁘다(關係不好)”와 “관계가 좋다(關係密切)”라는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다투며 대들. 반항함”이라는 『漢韓大辭典』의 의미해석은 크게 보면 관계가 안 좋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임으로 李申의 1번 풀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번과 상반된 2번의 풀이는 사전에서 결여되어 있다. 같은 단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出典例文 오류수정과 더불어 반드시 바로 고쳐져야 할 내용인 것이다.

② 잘못된 意味項目 설정의 誤謬

『漢韓大辭典』 5권 891페이지의 “截舌”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截舌】쌍방을 부추겨서 시비를 일으킴. 『金瓶梅詞話, 11回』 孫雪娥道

- 27) 李申 <釋“丁八”“東瓜花兒”>(『古汉语研究』 1996年 第1期): “丁八”一語, 說解頗見分歧。歸納之約爲兩類: 一, 謂男女分手。主此者或認爲“丁八”當爲“不”拆字, “丁八着好一向了”即“關係不好好一向了”; 或釋作“意見不合, 關係破裂”; 或云“隱喻分開”。二, 謂兩方關係密切。主此者或以爲“丁字不圓、八字不正”節縮爲“丁八”, 意爲不規矩, “丁八着好一向了”即男女在一起不規矩鬼混好一向了; 或釋作“以字形喻男女相合”; 或云“丁八着, ‘八’應作‘巴’, 丁巴着, 如釘相附著, 勾結甚堅, 此市井語, 爲兩相要好也”等等。

娘, 你看他嘴似淮洪也一般, 隨問誰也辯他不過, 明在漢子跟前戳舌兒, 轉過眼就不認了.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미항목과 출전예문에 문제가 보이고 있다. 『金瓶梅詞話, 11回』에서 해당 문장을 찾아보면 “戳舌”이란 어휘를 쓰지 않고 “戳舌”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그 주석을 살펴보면 “戳舌-搬弄脣說, 挑撥是非(입을 놀려 시비를 야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²⁸⁾ 『金瓶梅詞話, 28回』(你在傍戳舌怎的?)와 『金瓶梅詞話, 85回』(今被科菊丫頭戳舌, 把俺兩個姻緣拆散.)에서도 “戳舌”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의미항목 선택의 명백한 오류인 것이다.

그렇다면 “戳舌”은 실제로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百度에서 검색해 보면 “古代刑罰, 顧名思義就是人割掉舌頭.”라 적어 놓고 있다. 즉 고대의 형벌로 말 그대로 혀를 잘라버린다는 뜻인 것이다.²⁹⁾ “戳舌”의 의미가 “쌍방을 부추겨서 시비를 일으킴”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처럼 “戳舌” 항목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漢韓大辭典』이 “戳舌”에 대해 어떤 풀이를 하고 있을가가 궁금해졌다. 이에 필자는 5권 916페이지를 찾아보았다.

【戳舌】(백) 입을 놀림. 『金瓶梅詞話, 11回』 他又在漢子跟前戳舌兒, 轉過眼就不認了. 『金瓶梅詞話, 46回』 你說你恁行動, 兩頭戳舌獻勤出尖兒.

단순히 “입을 놀림”이란 의미해석은 부족한 느낌이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입을 놀려 시비를 부추기다”로 고쳐 주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漢韓大辭典』의 “戳舌”과 “戳舌” 항목에서 사용한 『金瓶梅詞話, 11回』의 예문이 약간 다르게 적혀있었다:

28) 笑笑生, 《金瓶梅詞話》上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 114쪽.

29) <http://baike.baidu.com/view/4225443.htm>

【截舌】: “明在漢子跟前截(截)舌兒”

【截舌】: “他又在漢子跟前截舌兒”

같은 소설의 11회인데 이처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漢韓大辭典』을 편찬한 학자들이 서로 다른 판본의 『金瓶梅詞話』를 사용하여 출전예증으로 삼은 결과이다. 필자가 人民文學出版社 本을 근거로 확인해본 결과 후자와 일치하고 있었다. 좋은 판본을 선택 사용하는 것이 사전의 편찬에는 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판본을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편찬 당사자들의 결정인 것이다. 다만 서로 다른 판본의 사용에 따른 동일 사전 내의 例文의 不一致는 수정 대상으로서 一考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③ 出典例文의 先後排列 誤謬

『漢韓大辭典』 7권 890페이지의 “殃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殃榜】 음양가들이 죽은 사람의 나이와 그 혼령이 며칠 만에 돌아오는가를 적은 문서『紅樓夢, 69回』 天文生應諾, 寫了殃榜而去.

일반적으로 문헌의 내용을 사전의 출전예증으로 쓸 때는 어휘가 사용된 최초의 문헌을 第一 예증으로 삼고, 어휘 의미의 변천에 부합한 문헌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나열 제시해 주는 것이 모범적인 모습이다. 1차 資料가 없거나 1차 資料가 의심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後代의 문헌에서 出典의 문장을 발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殃榜”란 어휘가 최초로 사용된 문헌이 『紅樓夢』이 가장 이른 작품인가? 『四庫全書』 컴퓨터판을 찾아보아도 “殃榜”의 사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金瓶梅詞話, 62回』를 살펴보면 “殃榜”의 사용 용례가 보이고 있다: “徐先生當寫殃榜, 蓋伏死者身上.”

주지하다시피 『金瓶梅詞話』는 明代의 작품이고 『紅樓夢』은 清代의 작품이다. 작품의 영향력은 『紅樓夢』이 앞선다고 말할 수 있으나, 사전의 출전예증을 기재할 때는 시간적으로 앞선 『金瓶梅詞話』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게다가 명색이 中國 四大奇書로 거론 되는 작품인 만큼 『紅樓夢』에 비해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紅樓夢』 앞에 『金瓶梅詞話』를 出典例文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④ 意味解釋과 出典例文의 不一致 誤謬

『漢韓大辭典』 10권 586페이지의 “科範”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科範】1. 의식(儀式). 또는 규격(規格). /元 陸友『硯北雜誌, 下』廬山道士黃可立之言曰, 寇謙之·杜光庭之科範, 不如鳴筠之詩……何則, 漸自然. 『金瓶梅詞話, 33回』春梅做定科範, 取了箇茶甌子, 流沿邊斟上遞與他. 2. 戲曲에서, 미리 정해진 배우의 동작을 이르는 말. 科汎. 科汎…… 3. 책략. 계략. 科汎. /元 方伯成『端正好(北)·憶別, 套曲』粧成科範, 將咱好事攔.

우선 『金瓶梅詞話, 33回』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潘金蓮(西門慶의 5번째 부인)이 李瓶兒(서문경의 6번째 부인)의 방에 酒案床을 마련하고 반금련의 어머니와 같이 가서 이야기를 나눈다. 때마침 陳經濟(서문경의 사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금련은 이병아의 방에 와서 술을 한잔 하고 가라고 그를 불러들인다.

그러나 진경제는 그냥 돌아가려다 억지로 끌려와 반금련을 만나게 된다. 반금련은 이에 대해 약간 기분이 안 좋아 春梅(반금련의 여종)를 시켜 큰 술잔을 준비시키고, 춘매는 차 사발(茶甌子)에다 술을 따라 진경제에게 준다. 반금련은 그가 차 사발에다 3잔을 마시기를 권한다. 당황한 진경제가 자리를 피해 살짝 달아나려다 실수로 창고열쇠를 방에다 놓고 간다. 반금련은 그를 끌려주려고 열쇠를 감추고, 노래를 부르면 열쇠를 돌려주겠다고 하며 진경제에게 노래를 시킨다.

위의 내용은 33回的 초중반 스토리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약간은 장난스럽고 억지를 부려 상대를 끌려주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정황자체가 결단코 의미해석 1번과 같이 “儀式” 또는 “規格”에 맞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春梅做定科範”에서 “科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위 意味解釋 1에 보이는 出典例文은 3번 뒤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1번으로 해석하면 “춘매가 의식(격식)을 갖춰, 차 사발을 써서, 술을 따라 그에게 주었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으로 상황을 일종의 罰酒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상대방에게 술을 먹이기 위해 계락을 세운 것이고, 그 술잔이 차 사발인 것이다.

『二刻拍案驚奇, 17卷』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此間官官相護, 做定了圈套陷人.” 이것은 필자가 『漢語大詞典』 한글 컴퓨터판의 찾기 기능을 사용하여 검색한 예문이다. “做定了圈套陷人”은 말 그대로 계락을 세워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다. 즉 “做定科範”(『金瓶梅詞話, 33回』)과 완전히 일치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科範”을 계락으로 인식한다면 “圈套”와 다를 바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意味解釋 1에서 사용된 『金瓶梅詞話, 33回』의 出典例文은 의미해석 3 아래로 옮겨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結言

본 논문은 『金瓶梅詞話』와 관련된 『漢韓大辭典』의 어휘 가운데 드러나 보이는 문제를 몇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필자는 본문을 크게 3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意味解釋 誤謬修正. 둘째, 意味解釋 補充修正. 셋째, 其他問題 誤謬修正이다. 그 대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意味解釋 誤謬修正에서는 “列子”, “打旋磨”, “科兌”, “稍間”의 풀이가 『漢韓大辭典』에서 잘못 기재되어있음을 밝혔다. 터무니없는 해석을 한 경우도 있었고, 비슷한듯하지만 정곡을 찌르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며, 한국어 어휘의 사용이 원래의 의미를 모두 담지 못한 오류도 있었다. 둘째, 意味解釋 補充修正에서는 “一日”, “攪撒”, “步戲”, “狼虎”의 풀이가 부족함을 언급하였다. 각각에 대하여 “긴 시간”, “임신시의 복통”, “중국 지방 민간에서 무대 없이 행해지던 공연 예술의 일종”, “음식을 탐욕스럽게 먹는”의 의미를 보충해 주었다. 셋째, 其他問題 誤謬修正에서는 “出典例文의 誤字”, “잘못

된 意味項目 설정”, “出典例文의 先後排列”, “意味解釋과 出典例文의 不一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結言”에서는 지면의 제한과 논증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상세한 서술은 피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할 부분이 있다. 필자가 『漢韓大辭典』 1권의 “一” 이하의 수많은 세부 의미항목을 조사해본 결과 『漢語大詞典』과 비교하여 현저히 많은 『金瓶梅詞話』 관련 어휘가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一丁不識”, “一口一聲”, “一子出家, 七祖昇天”, “一心一計”, “一尺水十丈波”, “一巴掌”, “一地裏”, “一百個”, “一冲性子”, “一弄”, “一呵”, “一差半錯”, “一陣風”, “一拏”, “一條腿”, “一般見識”, “一拳柱定”, “一家一計”, “一撚撚”, “一塊石頭落地”, “一覽無餘” 이상의 어휘들은 『漢語大詞典』에서 『金瓶梅詞話』의 문장을 출전예문으로 사용하여 기재한 것들이다. 그러나 『漢韓大辭典』에서는 의미항목으로 설정조차 하지 않았다. 많지 않은 내용의 비교로 사전 전체를 폄하 할 수는 없지만 “45만여 어휘”를 자랑하는 『漢韓大辭典』으로서 생각 밖의 허점을 노출했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의 어떠한 사전도 오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漢韓大辭典』 역시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필자가 발견한 몇 가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미루어 짐작컨대 『漢韓大辭典』의 다른 항목에서 다수의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은 후학들의 의무이고,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작업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전이 주는 권위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 결과물만을 믿는다. 어쩌면 문제를 알고 있어도 외면한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사전으로 출판되었다면 모두 암묵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독자로부터 암묵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전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여 『漢韓大辭典』 문제에 심도 있게 접근해보도록 할 것이다.

사전의 문제를 수정하는 일은 文化史, 文學史, 文獻學, 文字學, 言語學 등 모든 학문적 역량이 결집되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一個人이 사전의 오

류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즉 여러 전공분야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지속적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漢韓大辭典』의 수정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타 학문의 학술적 진전을 촉진할 것이며 이러한 학술 활동이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漢韓大辭典」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 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笑笑生 『金瓶梅詞話』,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年.

笑笑生, 『金瓶梅』, 강태권 번역, 서울: 술출판사, 2002年.

王雲伍 主編 『莊子今註今譯』, 臺北: 臺灣常務印書館, 1998年.

隋文昭 「釋“步戲”」 『中國語文』 1987年 2期.

李申 「釋“丁八”“東瓜花兒”」 『古汉语研究』 1996年 1期.

- 辭典

『漢韓大辭典』, 서울: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2008年.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5年.

『中文大辭典』,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民國82年.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59年.

『漢語大字典』, 四川: 四川辭書出版社, 1995年.

『金瓶梅詞典』, 北京: 中華書局, 1994年.

『中韓辭典』, 서울: 高麗大學校出版社, 1994年.

『中國大百科全書, 言語文字』,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8年.

❖ ABSTRACT

A Study of Error Correction in Words Used in Chinese Novel Kam Pin Mui Presented in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Choi, Tae-hoon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s with some words used in 『Chinese novel Kam Pin Mui』 that are presented in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The author analyses the problems into three aspects: first, error correction in meaning interpretation; second, supplementary correction in meaning interpretation; and third, additional error correction. The main points of the study are presented in the following. First, in relation to the error correction in meaning interpretation, this study finds out that the explanations of "Liezi", "daxuanmo", "kedui", "shaojian" in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are incorrect. The cases involve the explanations that have no foundation, do not get to the points, and have narrow meaning interpretations compared with original meanings. Second, as for the supplementary correct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explanations of "yiri", "jiaosa", "buxi", "langhu" are not sufficient. Thus, this study claims that the following meanings for each case should be added, including "long time," "abdominal pains during pregnancy," "a type of folk performing arts without stages in local areas of China, and "to devour in greedy gulps." Third, with respect to the additional error correction, this study analyses "the typos of the examples," "the setup of inaccurate meaning items," "the front-to-back arrangement of the examples," and "inconsistency between meaning interpretations and examples" displayed in the dictionary. The error correction in the dictionary can be possible only if the findings from several other disciplines should be incorporated, involving cultural history, the history of literature, philology, grammatology, linguistics, etc. It seems impossible for a person to solve all the problems with the errors in the dictionary. Thus, it will be greatly helpful to the author and the people who prepare for the new edition

of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if we can get continuous supports and comments from relating scholars of other disciplines. As a result, all these efforts will contribute to the academic progress for the relevant disciplines and these academic activities may develop a new area of the study.

Key Words

『漢韓大辭典』, 『金瓶梅詞話』, “列子”, “一日”, “丁八”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Chinese novel Kam Pin Mui』"Liezi", "yiri", "dingba"

논문접수일: 2012. 11. 02.

심사완료일: 2012. 12. 07.

게재확정일: 2012. 12. 21.